

태봉국의 이두를 찾아서

-양주 대모산성 목간1을 중심으로-

權 仁 瀚(성균관대학교)

I. 머리말

II. 목간의 판독과 해석

III. 목간 판독안 종합 및 이두 발달사적 의의

I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에 이르기까지 고대한국의 목간 출토는 계속되고 있다. ①서울 몽촌토성(2021, 고구려⁷ 551년 이전), ②대구 팔거산성(2021, 신라 7세기 초엽)을 비롯하여 ③부여 동남리·석목리(2022, 백제 7세기), ④양주 대모산성(2023~2024, 태봉 916년), ⑤익산 오금산성(구 익산토성; 2023~2024, 백제 657년), ⑥남원 척문리산성(2025, 백제 6세기 전반/후반⁸), ⑦익산 미륵산성(2025, 백제 사비기) 등에 이르기까지 가히 고대 삼국을 망라한 목간의 출토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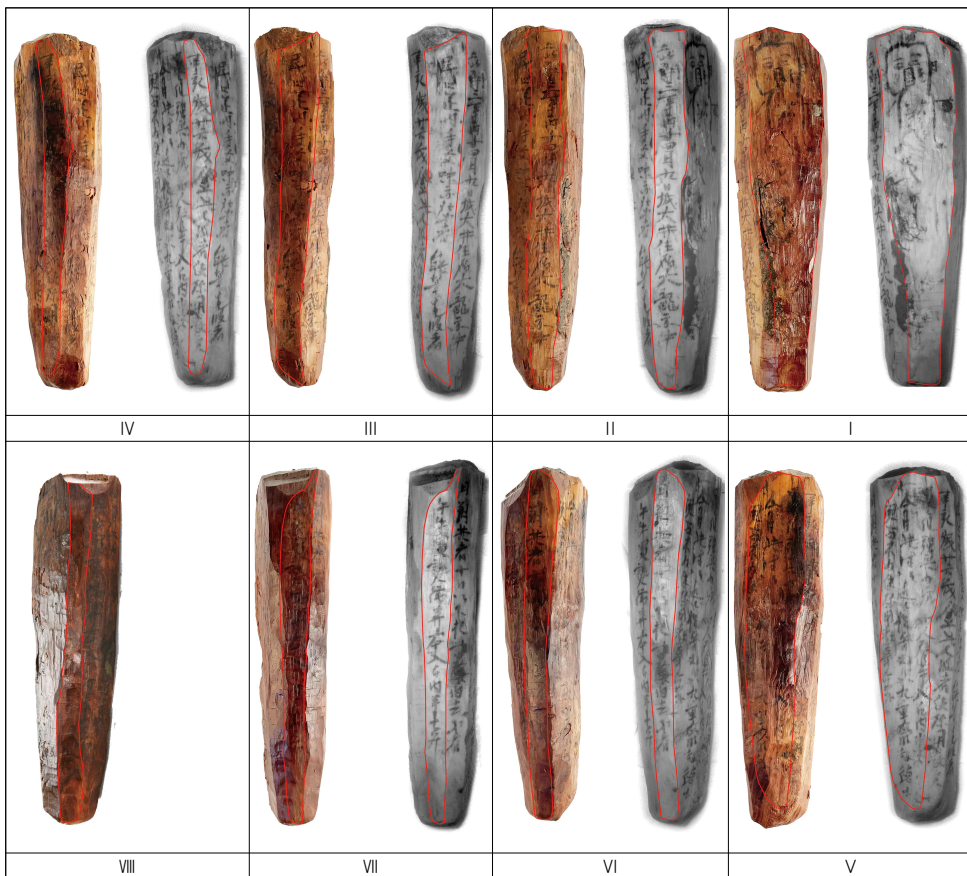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자료의 하나는 ④양주 대모산성의 원형 집수시설 출토 1~5호 목간이다. 특히 2023년에 발굴 보고된 1호 목간은 8면체 목간으로서 지금까지 발굴된 고대한국의 목간 중 가장 많은 글자가 적혀 있고(123자 이상), “政開三年”이라는 干支가 확인됨으로써 916년의 태봉국 목간이 최초로 출토된 사례일 뿐만 아니라, 판독 초기부터 이 목간에 당시의 이두 표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문맥의 파악에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만약 이들 목간 속에서 이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두 발달사 측면에서 松山村大寺鐘銘(904) ~ 禮泉鳴鳳寺慈寂禪師碑陰銘(939) 사이의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예상된다. 필자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어서 양주 대모산성 목간1에 대한 판독과 해석을 시도한 후, 이를 바탕으로 10세기 초엽 이두의 존재 양상 및 이두 발달사적 의의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II. 목간의 판독과 해석

이 장에서는 양주 대모산성에 대한 2023년의 13차 발굴 조사시 원형 집수시설에서 출토된 1호 목간에 대한 판독과 해석에 집중하고자 한다.¹⁾ 이를 위하여 발굴처인 기호문화재연구원에서 제공한 이미지 자료와 김병조·고재용(2024), 이재환(2024)의 판독안을 종합하여 정확한 판독을 시도함과 아울러 한자어(구) 및 이두자의 존재를 고려하고, 또한 비슷한 제의 내용을 보여주는 전傳인용사지 출토 목간과의 비교를 통한 해석문 도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1. 목간 디지털(컬러) | 적외선 이미지(VIII면은 적외선 미촬영)



〈기호문화재연구원 제공, 2024년 1월 19일〉

1) 2024년에 동 원형 집수시설에서 발굴된 2~5호 목간에도 이두토로 볼 만한 문자열이 보이나, 이 목간들에 대한 필자의 판독 및 해석안이 아직 다 정리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논의를 미루고자 한다.

2.2. 기존 판독안

표 2. 목간 판독안

VII면	VIII면	IX면	V면			IV면	III면	II면	I면	
			3	2	1					
	午	月	□ 開	今	最昇思兄	辛	□ 昇思民	政		1
	牛	朔	人	月	日	乙	亥	口	開	2
	賈	共	□ 當	此	化凡	歲	□ 惑惑彼	三		3
	□ 獲	者	不	時	強	廿	丙	年		4
	靜	十	焉	以	□ 通氏喪	六	手	丙		5
	弄	日	使	勝	□ 九乃	茂	爻	子		6
	本	以	邪	□ 院尼	□ 歲歲	登	株	四		7
	入	下	□ 用	兵告聲	□ 此四	此	亦	月		8
	斤	□ 把把	教	□ 幻和	人	人	祭	九		9
	丙	■	□ 庭事	史只	在	孤	者	日		10
	半	■	九	九	遊	者	能	城		11
	弄	丙	□ 日川	重	二	使	□ 等幸	大		12
	去	□ 疑丙	大	入	邪	□ 主生	井			13
	□ 省宮等聲	□ 下外不	川	九	用	□ 段段義教	住			14
			教	丙	教	者	□ 魯在所			15
			勝	□ 小中水	矣		大			16
			云	矣			龍			17
							亦			18
							□ 牛中			19

(기원전 2세기경(2024: 236))

표 1. 양주 대묘삼상 목간 판독표

VII면	VIII면	IX면	V면			IV면	III면	II면	I면	
			3면	2면	1면					
	午	月	□ 開人	今	□ ³³	辛	□ ³⁴	政	是: □ ³¹	1
	牛	朔	當 ³³	月 ³¹	□ ³³	亥	口	開	日	2
	賈	共 ³¹	不	此	□ ³³	歲	惑 ³³	三	우측 상: □ ³¹	3
	□ ³³	者	焉	時	強	廿	丙 ³¹	年	코+입: □ ³¹	4
	□ ³³	十	使	以	□ ³¹	六	手	丙	코: 木	5
	弄	日	邪	魯	□ ³³	茂	爻	子	좌측 상: □	6
	本	以	用	從	□ ³³	壹 ³³	味	四	입: □	7
	入	下	教	□ ³³	□ ³³	此	亦	月	우측 가슴: △	8
	斤	把	□ ³¹	□ ³³	八 ³³	人	祭 ³¹	九	좌측 가슴: 木	9
	丙	□	九	史 ³⁴	在 ³³	□ ³¹	者	日	□ ³⁴	10
	半	□	□ ³³	九	遊 ³¹	者	能	城	□ ³¹	11
	弄	丙 ³³	如 ³³	重	二	使	□ ³³	大	□ ³¹	12
		去	下 ³³	壹 ³³	入	邪	□ ³⁴	非		13
		省 ³³		教	九	用	□ ³¹	住	□	14
				德	丙 ³³	教	者	□ ³¹	□	15
				云	□ ³³	矣		大		16
					□ ³³			鷹		17
								亦		18
								□ ³¹		19

(이재환[2024: 29])

2.3. 목간 판독안

※ 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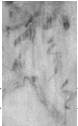
{ }: 합자, []: 추독자, □: 판독 불능자, A^{B/C/D...}: A 또는 B/C/D... (단, A의 가능성을 더 높이 봄; B/C/D... 후보자들은 이재환(2024) 및 김병조·고재용(2024)를 종합한 것임).

I. (인물 형상) -우측 뺨: ①竟,

-좌·우측 가슴 아래: ②[如][律]令

① I 면에서 인물 형상의 눈(눈썹 日), 코([水]), 귀(日), 입(口), 좌·우측 가슴(△) 등에 문자로 볼 만한 여러 묵흔들이 남아 있으나(이재환(2024)의 판독표 참조), 필자로서는 위의 ①, ②를 제외하고는 의미있는 문자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눈, 코, 입, 가슴 등을 먹으로 그린 다른 그림들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상과 해당자들이 우연히 일치된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①은 이미지()로 보듯이 ‘竟’의 형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는 「覺」자의 속자에 해당되는 글자로 보아 문제가 없다.

②이 문자열()은 이미지로 볼 때, “如律令”으로 판독될 가능성이 있다. 『大書源』(2007, 東京: 二玄社;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책에서 인용함)의 자형 이미지와 비교해볼 때,

첫 번째 글자는  등과 유사하고, 세 번째 글자도  등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글자가 위의 두 글자와 달리 세로 축을 벗어나 우측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디지털 이미지에서 보이는 커다란 옹이 자리()를 피한 결과로 보고 싶다. 문제는 두 번째 글자인데 좌·우획 사이의 간격이 넓기는 하나,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당대(唐代) 자형 자료들

에서 볼 수 있는 듯하기에( 등) 이 글자를 「律」=「律」자로 볼 만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부적(符籍)과 같은 자료에서 “如…令” 사이에 들어갈 글자는 「律」자 외에 다른 후보를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첫 번째 글자의 좌변과 두 번째 글자의 우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이 문자열을 최종적으로는 “[如][律]令”으로 판독하고자 한다.

II. ③政開三年丙子四月九日城大井住④{爲+在}[爲/在/所]龍亦⑤中^{牛?}

③II-1자(II면의 첫 글자, 이하 같음; )는 「政」임이 분명하다. 흑여 이미지상 긴 가로획 위 정중앙에 위치한 반달 모양의 획()을 「政」자의 일부로 볼 것이나, 아니면 다른 부호로 볼 것이냐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흑반원호를 중국 자료에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管錫華(2002) 참조), 춘추시대 금문(春秋 金文) 등에서 비슷한 자형 사례들(  )

cf)  을 볼 수 있기에 II면 첫 글자를 「政」자로 확정하고자 한다. 춘추시대 금문들에서 가로획 중앙에 ‘-’획을 이고[戴] 있음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④II-15자()는 초기부터 판독자들을 괴롭혀온 글자이다. 그래서 「[爲]」자로 보기도 하고, 「在」, 「所」자로 보기도 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자의 원편에 「在」자의

1~3획 부분이 보이고, 그 오른쪽에는 「爲」자의 약자()와 유사한 형상이 찾아지므로 이를 {在爲}의 합자로 보되, 이두의 문법적으로는 “爲在”[亨健; 하신]의 합자로 보고자 한다. 11세기 초 고려시대 이두 자료인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1024/1038)에서의 “刻造爲在^소(^소亨겨며)”의 사례가 보임도 고려한 것이다.²⁾ 필자의 판독안이 인정된다면, 이 글자는 태봉국 특유의 합자라는 점에서 문자문화사적 의의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⑤II-18자()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牛」자로 판독하였으나, 2024년 1월에 열린 한국목간학회에서의 판독회를 계기로 「中」자로 판독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재환(2024),

pp.217-220). 「牛」자의 형상을 닮은 「中」자의 자형(   등)의 존재가 참고될 수 있다. 이두 문법면에서도 “亦中”[여과; -에, -에게]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맥상으로도 큰 우물에 사는 “龍왕님”께 소원을 비는 서두의 글이 위치할 자리로 보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1024/1038)의 판독과 해석에 대해서는 노명호·이승재(2009),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판독과 역주」, 『중수문서』(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p.55의 19) 본문 및 이에 대한 각주 50)을 참조.

를 통과된 것으로 보여 「金」자의 자형(金 金 등)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환 (2024: 230)에서도 「金」자 판독안에 동의하고 있음도 참조.

⑬IV-10자()는 묵흔이 분명치 않으나, 문맥 및 필획의 흐름으로 보아 기존의 「孤」자 추독안을 유지한 것이다.

V 1. ⑭□[最/環/𡇗/足? 𠂔?][化]凡?/■[凡]强⑮[兵]/[宀]惡/喪/畏?⑯[力]九?⑰[減]歲?□八在追⑱ [二]丁?入凡內⑲□小/水/中?⑳[矣]



⑭V1-1~3자()는 판독이 쉽지 않은 문자열이다. 디지털 사진에서 보듯이 1~2자의 표면이 검게 되어 있어서 필획의 행방을 추적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 글자는 상부는 좌하로 기울어진 ‘𠂔’에 가까워 보이고, 하부는 우측의 ‘ㄴ’ 정도만 보일 뿐이다. 좌하부는 어떤 형상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자는 「最」자로 추독할 만한 것이기

는 하지만(最 最 最 등 참조) 최종적으로는 미상자로 보고자 한다. 기타 후보 글자들(環/昇/𡇗/足)의 특징은 잘 찾아지지 않는 듯하다. 두 번째 글자는 「乙」자로 판독되기도 하나, 마지막 획에 이어져 우상으로 뻗어올라간 희미한



획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혹여 이 글자 자리는 IV, V-2행과 비교하여() 글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제1자 하부 획의 일부가 아닐까 한다. 그렇게 되면 이 행의 글자수는 기존보다 한 글자가 줄어든 16자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글자는 초기 판독안대로 「化」자로 보고 싶다. 化 化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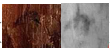
※■[凡]으로 읽을 가능성도 있음.

⑮V1-5자()도 의견이 분분한 글자이나, 하부가 심방변(‘心’)나 옷의변(‘衣’)의 하부에 해당 되는 획의 특징이 찾아지지 않으므로 우선 「惡」, 「喪」, 「畏」자 판독안은 제외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남은 후보는 「兵」자 판독안인데, 한대 자형 자료들에서 위의 이미지처럼 하부가 여섯 육(‘六’)으로 처리하는 사례들(兵 兵 등)과 함께 후대 행서 자료들에서 상부를 갖머리

(‘宀’)처럼 처리하는 사례들(兵 兵 兵 등)이 있음을 근거로 이 글자를 「兵」자로 추독한

것이다. 다만, 이 글자는 「宀」=「肉」자로도 판독할 수 있을 듯하여(兵 兵 兵 등 참조) 이 판독안도 병기한 것이다. 다만, 문맥상으로는 “强兵”이 더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전자를 앞세운 것이다.³⁾

3) “强肉”이라는 한자어(구)는 거의 찾기 어렵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디자인을 강조하여 “강한 놈”이 아닌 “예쁜 놈”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의미의 “强肉美食”이라는 한자 성구를 제외하고는 “强肉”이 쓰인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00326/27136086/3>; “키보드 하

⑮ V1-6자()는 「力」, 「九」자로 판독하는 안이 제기되어 있다. 「九」자로 보기에는 2획

의 마무리 삐침이 불완전하여( 등 참조), 디지털 사진 우측에 보이는 홈 속에 「九」의 마지막 삐침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力」자로 판독한 것임을 밝혀둔다. 물론 「九」자로 읽을 가능성은 여전할 것이다.

⑯ V1-7자()는 IV-3자 이미지()와 유사한 필치로 보아 「歲」자로 추독하였으나, IV-3자에 비해 뒤편 산(山)의 이미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우하의 획들도 조금은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또다른 판독 가능성으로 제안된 「滅」자의 자형 자료와 비교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그리하여 「滅」자 자형 자료들 중에      등과 같이 좌변 삼수(彡)의 존재가 잘 찾아지지 않으면서 V1-7자의 이미지와 비슷한 예들이 존재함을 근거로 「滅」자로 추독해본 것임을 밝혀둔다.

⑰ V1-12자()는 기존안대로 「二」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다만, 적외선 사진 상으로는 「二」자의 제2획 아래로 「丿」획이 있는 듯하므로 「丿」자(자측거틸 측)의 판독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丿」자로 보기에는 갈고리 획의 묵흔 농도가 「二」자와 차이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 판독안은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⑱ V1-16자()는 「小」, 「中」, 「水」자로 판독하는 안이 제안되었는데, 이 목간의 다른 곳에 보이는 자형과 비교하여(II-18, VII-2) 「中」자 판독안은 우선 제외시킬 수 있다. 남은 후보자인

「小」의 자형()이나 「水」의 자형()에 비견될 만하나, 제1획이 「丿」(갈고리 꺾)보다는 「丨」(뚫을 곧)이므로 「小」자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제2획의 상부 필획이 자못 특이하여 「小」자 판독안도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미상자로 보고자 한다.

⑳ V1-17자()는 획의 흐름이 상부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나머지는 IV-16자()와 비슷하다고 보아 「矣」자로 추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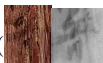
V2. 今⑳日此時以[咎]㉑^{從/從/殃?}[告]㉒^{[兵]/齋?}[夬]㉓^{相/拜?}[史]㉔^{只?}九重㉕[大]川^{齋/大^天(武周字)/大州/大川?}教德云

㉑ V2-2자()는 얼핏 「月」자로 볼 수도 있으나, 문맥상 「日」자가 적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형상으로도 「日」자 판독안을 뒷받침 받을 수 있다.   등 참조.

㉒ V2-7자()는 필획의 흐름상 「從」자와 비슷하기는 하나( 등 참조) 우방의 상부에서 「ㄣ」의 형상이 찾아지지 않음에서(디지털 사진에서 보듯이 이 부분은 뒤편에 눌린 듯한 홈이 있어서 정확한 실획의 추적이 어렵다), 이재환(2024: 221)에서 「殃」자() 판독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필획상의 일치를 발견하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미상자로 본 것이다.

나만 바뀌도 책상이 확 달라진다”, 동아닷컴 2010-03-26 참조).

㉓ V2-8자()는 「告」자로 보기에는 제3획(수직획)이 제2 가로획의 위쪽에서 시작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보이나, 비슷한 자형 자료()를 찾을 수 있음을 근거로 “[告]”자로 추독한 것이다.

㉔㉕ V2-9자()와 V2-10자()는 필획의 흐름상 각각 「幻」자와 「史」자의 판독안을 따르는 것이다.   등 참조.

㉖ V2-13자()는 초기부터 「齋」자로 판독해왔으나, 디지털 사진에서 보듯이 상부에 커다란 ‘ㄗ’ 모양의 홈이 있어서 실획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V1행과 비교할 때, 두 글자 분량의 자리로 보는 안에 동의하면서도 아래쪽 글자가 「元」(=天; 武周字)나 「州」로 보기 어려운 대신 「川」자의 획 흐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참조) 최종적으로 “[大]川”으로 판독한 것이다.

V3. ㉗{閉閑?人}㉘[當]与?不爲使弥㉙[用]同?教㉚[矣]耳^{黃/臺?}[九]㉛□日/川?㉜內^{如?}㉝外^{下/不?}

㉗ V3-1자()는 아래 쪽에 「人」자가 합쳐진 합자임이 분명한데, 문제는 위의 글자가 무엇인가에 있다. 필획상 「門」의 행서 아래 쪽에 「木」의 형상보다는 「才」의 제3획이 우하 쪽으로 내려간 느낌인데, 이는 「閉」자의 이체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閉人}의 합자로 판독한 안에 동의한 것이다.

㉘ V3-2자()는 제안된 두 판독안의 자형 자료들(    )을 비교해보면, 맨 마지막 획의 꼬부림이 돼지꼬리처럼 감아올린 것이 아니라(「与」자 초운변체 참조), ‘{ㄗ+}|’ 정도의 획의 합성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상부도 「与」자보다는 복잡한 획의 흐름이 관찰되므로 「當」자로 추독한 것이다.

㉙ V3-7자()는    과 비교해볼 때, 「同」자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마지막 세로 획의 존재는 「用」자로 추독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IV행 말미에 동일한 문자열 “使弥用教”의 존재도 이를 뒷받침한다.

㉚ V3-9자()는 IV행 마지막 글자가 “使弥用教矣”인 점과 왼쪽의 희미한 수직 획()을 제외하고 보면, 「矣」자의 초서(  등)와 비슷한 특징이 보이므로 「矣」자로 추독함과 동시에 아래 글자를 「耳」자로 보아 “[矣]耳” 두 글자로 판독한 것이다.

㉛ V3-12자()는 자형상 「日」자로 보기는 어려운 듯한데, 「川」자로 보기에 V2-13자의 하부 획()과 차이가 보이므로 최종적으로 미상자로 보고자 한다.

㉔ V3-13자()는 앞선 행들에서 「內」자로 판독한 글자들과 유사한 특징이 보이므로 「內」자로 판독한 것이다.

㉕ V3-14자()는 「下」자로 보기에는 왼편 획을 무시하기 어렵고, 「丕」자로 보기에도 왼편 획의 흐름에 차이가 있으므로 「外」자 추독안에 동의한 것이다. 東晉 王羲之 十七帖(王羲之) 宋 何紹基 外 등 참조. 한자어 “內外”도 고려.

VI. 月朔^{共(井八)?}者十日以下^{把^把?^把內去^{者^{省/眷}}}

㉖ VI-3자()는 디지털 사진의 목흔이 훨씬 선명한데, 윗 부분을 「井」자로 보기에는 ‘二’의 제2 획을 「一」자처럼 아래로 빼침 처리하는 사례를 볼 수 없으므로(北魏 王羲之 井 東晉 王羲之 井 唐 顏真卿 井 등 참조) 자연스럽게 「共」자 판독안에 동의한 것인데, 「共」자의 두 수직 획이 동시에 아래쪽 가로 획 아래로 내려간 사례도 찾을 수 있음에(明 嚴明法 참조) 이렇게 판독한 것이다.

㉗ VI-9자()는 「把」, 「杷」 중 어느 글자로 판독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특히 행서체에서 좌변의 ‘才’, ‘木’이 흔히 교체되고 있다. 그러나 「杷」자가 가리키는 “비파나무”는 중국 남부와 일본이 원산지인 상록 활엽수로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재배되는 식물이어서⁴⁾ 과연 양주 지역에 자랄 수 있었는가에 의문이 생기므로 「把」자로 판독한 것이다.

㉘ VI-10~11문자열()은 무엇인가를 썼다가 지운 흔적이 뚜렷하므로 “ ”으로 표시하고, 해독에서도 제외시킬 것이다.

㉙ VI-14자()는 한 글자라면 「省」자로 볼 만하나, 두 글자라면 「𠂔」, 「者」자로 읽힐 가능성도 유력한 듯하다. 「省」자로 보기에는 ‘少’의 획 흐름(‘小’+‘ノ’)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래 쪽은 「者」자의 형상이 뚜렷하므로 “𠂔者” 두 글자로 보고자 한다.

VII. 午^{中^{牛?}}[買]^{變/寢?}[停]弃本入斤內半弃

㉚ VII-2자()는 II-18자()와 획의 흐름상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中」자 판독안을 유지한 것이다.

㉛ VII-4자()는 정확한 글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윗 글자는 좌상에 ‘言’, 하중양에 ‘火’ 또는 ‘又’ 형상의 글자이나 우상의 형상이 불분명하여 미상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4)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 약용식물 백과사전 1』 참조

④VII-5자(𡇗)는 좌변의 ‘亻’ 또는 ‘亻’ 형상이 뚜렷하고, 우변은 「停」자(停 停 停 등)과 비슷한 획의 흐름이 관찰되므로 「停」자로 추독하고자 한다. 통일신라의 지방 군사조직인 10停의 존재를 고려하면, VII-3~5 문자열 “[買]□[停]”은 태봉국 당시 양주 또는 양주 인근에 설치된 군사조직의 주둔지 지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향후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⁵⁾

2.4. 목간 해석안

이상의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행별로 해석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약자, 속자는 정자로 고쳐서 옳기되, 확정된 이두토에는 기울임체 및 직선 밑줄을, 고유명사에는 물결무늬 밑줄을 쳐서 구분할 것이다.

I. 覺! …… [如][律]令!

(覺醒! …… 如律令! [주문呪文; 율령처림!])

II. 政開三年 丙子 四月 九日 城 大井 住(1)爲在(-헝견) 龍(2)亦中(-여기)

(政開 3년(916) 丙子 4월 9일, 城의 大井에 住하신 龍왕님께)

(1)“爲在”: “헝견; 爲/동사+ 在/조동사+(ㄴ/동명사어미)”로 분석되는⁶⁾ 이두토로 문맥상 후행하는 “龍”을 수식하는 “住하신”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일한 구성과 의미를 지니는 이두토의 사례가 14세기의 이두 문서에 인용된 12세기 이두 문서 「장성감무관첩문」(1198/1378; ①)에 보여서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사례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6~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월성해자 20호 목간의 앞면(②)에서 “~立在節~”(세견 때; 세우신 때)라는 동일 구성의 예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1세기 말~12세기 초 석독구결 자료로 추정되는 「화엄경소」에서 동일한 구성과 의미를 지닌 “~ッナ 1(헝견)+N(때, 까닭)”의 사례도(③ ④) 다수 나타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이 문서(양주 대모산성 목간1; 이하 같음)에 명사 수식의 이두토 “爲在”(헝견)이 등장하여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①“長城郡地 白巖寺 下安 令是於爲(헝이늘삼(아)) 落點 教等乙 仍尹기신들 지글우) 下安令是 白遺(헝이늘고) 右寺 既 殘亡爲在(헝견) 山枝 五結 分八田 處所是如在乙이다(헝견을)”(長城郡 땅 白巖寺에 奉安시키도록 落點하신 것을 말미암아 봉안하옵고, 이 절은 이미 殘亡한 산기슭[山枝] 5結로서 나뉘어 8곳의 田과 處所이던 것을) <「長城監務官貼文」, 1198/1378>⁷⁾

②“第八巷 第廿三大 麻新 立在(세견) 節 草辛”(여덟째 거리는 스물셋째 大舍인 麻新이 세우신 때를 풀이 드문 (때다.)) <경주 월성해자 20호 목간 앞면, 7세기 전반>⁸⁾

5) “買省縣”(고구려) → “來蘇郡”(경덕왕 개명)의 양주의 옛 지명 기록 외에 이른바 “買省城” “買蘇川城” 전투(675년) 지역도 양주와 유관하다는 점에서 “[買]□[停]”을 태봉국 당시의 지명으로 생각하게 된 배경임을 밝혀둔다. 박종욱(2024), 백종오(2024) 등의 논의를 참조.

6) 이두토의 형태 분석은 남풍현·이건식 외(편), 『이두사전』(단국대학교출판부, 2020)을 참고한 것이다.

7) 「장성감무관첩문」에 대해서는 이철수(1997), 노명호 외(2000)의 논의를 참조. 여기에서의 해석은 노명호 외(2000: 363-372)의 판독 및 역주문을 인용한 것이다.

8) 이승재(2017), pp.197-199의 논의를 참조.

- ④“{此} 菩薩 十尸 種 無盡藏 成就 ソナヘ {故} 1 : (호견돌로인여)”(이 보살은 열 가지 무진장을 성취한 까닭이다.) <화소25:11-12, 11세기말~12세기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자는 「전傳인용사지목간」(9세기초⁹⁾)의 첫 문장 “大龍王다
다대용왕님께 사립니다.”에 대격 용법의 ‘-中’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¹⁰⁾ 고려 초기
이두문인 「정도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1031; ② ③)에서의 “-亦中”에도 처격 용법뿐
아니라 여격 용법도 보인다는 남풍현(2000: 507-508)의 해독 논의를 근거로 이 문서
에서의 “-亦中”을 여격 용법으로 해석하여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 ③ “金直 田筒 亦中(-여구) 同年 十一月 六日 元(비릇) 伯士 身寶衆 三亦(-이) 日 以(-로) 合
夫 參伯肆拾捌 并以(-아로) 石 乙良(-을란) 第二年 春節 只只(-도록) 了分齊濟(무히제코)
成是 不得(얼이 몬실호) 犯由 白去乎等 用良(술가은돌 쓰야)”(金直과 田筒에게 같은 해
11월 6일부터 (시작하여) 伯士 자신의 寶에 있는 衆 셋이 매일 쉬지 않고 도합한 人夫
348인과 함께 돌갈(돌의 경우는) 이듬해 春節까지 마친다 하고 조성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하였으므로) <「정도사후승적탑조성행시기」-3>

(백성들[民口]이 거역하여 손을 거두어들이는 것이[內帛手] 爇辭의 意味[爇味]라고 한 까닭이라면, 능히 筆로써 저 사람을 살려주소서!)

- 9) 『화엄경소』를 비롯하여 석독구결 자료의 검색에는 “sktot_2022_09_textD(번역본)_0925.hwp” 파일(장경준 교수 제공)을 이용하였음을 밝혀 사의를 표한다.
- 10) 『전인용사지목간』의 판독 및 해석에 대해서는 김영옥(2011), 이승재(2017)의 논의를 참조.
- 11) 이 문서의 판독 및 해석안은 노명호 외(2000: 124, 127)을 참조.
이승재(2000)에서 이 문서를 「남씨노비문서」로 부르고 있으나, 노명호 외(2000: 123)에서는 「百姓卜莊奴婢許與粘連文書」로 부르면서 “百姓 신분인 卜莊이 南永菴의 奴인 손자 龍萬에게 노비를 許與하는 데 따른 일괄문서”로 소개하면서, 그 출전이 英陽南氏 집안의 자료를 정리한 『南宗通記』(1668)에 轉載되어 전해온다고 밝히고 있다.
- 12) 『정도사오충서답조성형지기』의 판독과 해석안은 남풍현(2000: 481-534)의 논의를 참조. 이하 같음.

【民口】①謂民衆的議論(백성의 여론). <呂氏春秋·離謂>: “鄭國大亂, 民口謹譁, 子產患之(백성들의 여론이 시끄러우니 子產(=公孫僑)이 이를 근심하여), ……” ②指丁口(백성). 宋 梅堯臣 <田家語>詩序: “庚辰詔書: 凡民三丁籍一, 立校與長, 號‘弓箭手’, 用備不虞. 主司欲以多媚上, 急責郡吏; 郡吏畏不敢辦, 遂以屬縣令. 互搜民口, 雖老幼不得免.” <『漢語大詞典』+ 단국대 『漢韓大辭典』 뜻풀이>13)

(2)「逆」자의 여러 의미들 중에 여기에서는 “거역하다” 또는 “배반하다”(「逆」 ⑩) 정도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이어지는 “內訌手”와 어울리는 뜻일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전 인용사지목간」 앞면에서의 “主民渙次”(군주의 백성이 흩어지던 차에)라는¹⁴⁾ 구절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逆」 ①迎接; 迎候(맞이하다. 영접하다.) ②迎受; 接受(받다. 받아들이다.) ③迎戰; 迎擊(맞아 싸우다. 나아가 맞받아치다.) ④倒向, 反向(거꾸로 향하다. 반대로 향하다.) ⑤指星體向西運行(별이 서쪽으로 운행하다.) ⑥顛倒(뒤바뀌다. 전도되다.) ⑦退却(뒤로 물러나다. 퇴각하다.) ⑧回旋(돌다. 선회하다.) ⑨排斥; 拒絕(물리치다. 거절하다.) ⑩違背; 拂逆(거스르다. 위배하다. 거역하다.) ⑪背叛; 作亂(배반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⑫指叛亂者(반역자. 배반자.) ⑬背理; 失常(도리에 어긋나다. 상도를 벗어나다.) ⑭預測; 揣度(헤아리다. 예측하다.) ⑮預先; 事先(미리. 사전에.) ⑯考察(살펴보다.) ⑰奏事上書(아뢰다. 글로 아뢰다.) ⑱中醫指氣血不和·胃氣不順等所致病症(한의학 용어. 손발이 차거나 구역질이 나는 증상.) <『漢語大詞典』+ 단국대 『漢韓大辭典』 뜻풀이; 예문 생략>

(3)“內訌手”가 “손을 거두어 들이다”의 의미를 지닌 한자어임을 반영한 해석안이다. 이때의 「內」자는 「納」자와의 통용 사례에 해당될 것이다.

【內手】猶斂手(손을 거두어 들임.) 謂不敢與爭高低(감히 맞서서 겨루지 못함.) <『漢語大詞典』+ 단국대 『漢韓大辭典』 뜻풀이; 예시 생략>

(4)“爻味”는 자전류나 한자어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어휘여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가능한 몇 가지 가능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爻」자와 「味」자가 지닌 의미를(「爻」 ②, 「味」¹ ⑦) 살려 “爻辭의 意味” 정도로 해석하는 방안, 둘째로 「爻」자가 「肴」자와 통용될 뿐만 아니라(「肴」 ②) 「肴」자가 후행하는 「味」자와 잘 어울리는 글자라는 점에서 “안주 맛” 정도로 해석하는 방안, 셋째로 「爻」자가 「效」자와도 통용되기는 하나(「效」 ㉓) 「味」와 어울리는 마땅한 해석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 미상”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筆」과 “爻辭의 意味” 사이에 모종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첫 번째의 해석 방안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爻」 ①<『周易』中組成卦的符號(주역의 괄을 구성하는 부호). 分爲陽爻和陰爻. 每三爻合成一卦, 可得八卦, 稱爲經卦; 兩卦(六爻)相重則得六十四卦, 稱爲別卦. 爻含有交錯和變化之意. ②爻辭的省稱(爻辭의 준말). ㉓본받다. 效와 통용. <『廣雅, 釋詁3』> 爻, 效也. <『漢語大詞典』 ① ②+ 단국대 『漢韓大辭典』 ㉓; 예문 생략>

「味」¹ ①物質使舌頭得到某種味覺的特性(맛). ②指物質使鼻子得到某種嗅覺的特性(냄새). ③辨味; 嘗味(맛을 보다). ④吃; 進食(먹다). ⑤菜肴; 食物(반찬, 요리). ⑥體味; 體會(체득하다, 체험하다). ⑦旨趣; 意義(뜻, 의미). ⑧量詞(수량사). 中藥配方, 藥物的一種叫一味. 有時亦用於菜肴. ⑨佛教語. 六塵之一(六塵의 하나). <『漢語大詞典』+ 단국대 『漢韓大辭典』 뜻풀이; 예문 생략>

13) 『漢語大詞典』의 원문에 단국대 『漢韓大辭典』의 뜻풀이를 기입한 것이라는 의미. 이하 같음.

14) 이승재(2017: 58)에서의 해석에 의함. 김영옥(2011: 75)에서는 “주민이 갈라져서”로 해석하고 있다.

『者』 ①熟肉(익힌 고기)。亦泛指魚肉之類의 葷菜。②爇와 通용。《隸釋，博陵太守孔彪碑》 易 建八卦，撥看般辭。〈洪适注〉 以肴爲爇。③通“穀”。混雜(혼잡하다)。〈『漢語大詞典』 ① ③+ 단국대 『漢韓大辭典』 ②; 예문 생략>

(5)“-亦在等者”：“-여견든 은; 亦/서술격조사+ 在/조동사+(ㄴ/동명사어미)+ 等/의존명사+(ㄴ/동명사어미)+ 者/연결어미”로 분석되는 이두토로 본 것인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신출 이두토이다. 기출 “-亦在等以”(-여견들로; ~인 까닭으로)의 사례(①)에 기 대고,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용법의 “-者”(-은; ②)15)를 합쳐 “爇味亦在等者”를 “爇辭의 意味라고 한 까닭이라면”으로 해석한 것임을 밝혀두면서 이두 전공자들에게 그 가능 여부에 대해 질정을 구하고자 한다.

①“玄風縣 北面 觀音房 主人 貞甫 長老陪白賜承(-습시은) 舍利 一七口 乙(-을/를) 京山府土 處藏寺主 彦承 長老亦(-이) 今月一日 陪到爲賜乎 事亦在等以(히시은 일여견들로) 本來 瑠璃筒 一 鎗合 一 重 二兩亦中(-고) 安邀爲白旃(히습은며)”(玄風縣 北面的 觀音房 主人인 貞甫長老가 되셔온 사리 7⁷구를 京山府 땅 處藏寺主人 彦承 長老가 금월 1일 뵈시어 온 일이 있으므로 본래의 瑠璃筒 하나와 鎗合 하나(무게 2량)에 安邀하오며) <『정도사오충석 탐조성형지기』_7)>

②“右諸人(인) 若 大小便爲(히) 若 臥宿(히) 若 食喫(히) 爲(히) (위)의 여러 사람들이 만약 大小便을 하거나 만약 누워서 자거나 만약 먹고 마시거나 하면)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_3(c), 755>16)

“右念行道爲(히) 作 處(히) 至(히) (니른은)”(右念行道하여 만드는 곳에 이르면) <『신라 화엄경사경조성기』_4(h)>

(6)“能筆生彼者”：우선 “能筆生彼”는 “능히 筆로써 저 사람을 살리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문말의 “-者”의 해석은 『한어대사전』에 “문말에 쓰여 명령이나 소망의 語氣를 나타낸다”는 조사 용법이 있으므로(『者』 ⑩) 이를 적용하여 “능히 필로써 저 사람을 살려주소서!” 정도로 해석한 것인데, Ⅱ행 말미에서 “용왕님께” 소망을 비는 호응관계도 고려한 것이다.

『者』 ①代詞。用在形容詞·動詞·動詞詞組或主謂詞組之后，組成“者”字結構，用以指代人·事·物。指代人(자)。②代詞。用在形容詞·動詞·動詞詞組或主謂詞組之后，組成“者”字結構，用以指代人·事·物。指代事或物(것)。③代詞。用在數詞之后，指代上文所說的幾種人或幾件事物(몇 사람, 몇 건)。④代詞。指示代詞(이, 이것)。相當於“這”。⑤助詞。用在表時間的名詞后面，表示停頓(…때에)。⑥助詞。作爲定語后置的標志(수식어 후치 표시)。⑦助詞。用於名詞之后，標明語音上的停頓，并引出下文，常表示判斷(…은 …이다)。⑧助詞。用在句末，表示疑問(의문 표시)。⑨助詞。用在句末，表示擬度(추측 표시)。⑩助詞。用在句末，表示命令·曉示或祈使語氣(명령이나 소망 표시)。⑪助詞。用於複合句前一分句，表示因果關係(인과관계)。⑫助詞。用於複合句前一分句，表示假設關係(가설관계)。⑬連詞。猶則(…면)。⑭輕狂(경망스럽다)。⑮假借，借口(구실로 삼다, 핑계로 삼다)。⑯通“諸”。衆(모)。⑰通“諸”。猶之(…의)。〈『漢語大詞典』+ 단국대 『漢韓大辭典』; 예문 생략>

15) 조건 연결어미 용법의 “-者”에 대해서는 남풍현(2000: 237-238)의 설명을 참조. 또한 이두 및 석독구결 자료에서의 ‘者’ 구문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용(2019)의 논의도 참조.

16)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의 판독과 해석안은 남풍현(2000: 200-240)의 논의를 참조. 이하 같음.

IV. 辛亥歲 廿六 茂[金] 此人(1)[孤]者 (2)使彌用教矣.

(신해년(891)에 태어난 26세 茂金, 이 사람은 孤兒이나, (그로) 하여금/(그를) 使(者)로 널리 쓰라는 敎였다.)

(1)“孤者”: 「孤」자의 본래적 의미를 살려 “고아”로 해석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孤」 ①幼年喪父或父母雙亡。②幼年喪母也叫孤。③孤兒。指幼年喪父的人。④謂使成爲孤兒。⑤特指爲國事而死者的子孫。⑥猶憐恤。⑦年老無子的人。⑧孤陋無知。⑨小。⑩輕賤。⑪辜負, 對不住。⑫顧念。⑬孤立; 單獨。⑭謂使孤立。⑮獨特, 特出; 特別。⑯猶遠。⑰古代諸侯君王的自稱。春秋時諸侯自稱寡人, 有凶事則稱孤, 后漸無區別。⑱古代官名。其地位在三公之下。⑲古代戲曲名詞。指劇中屬於官員一類的人物。宋雜劇·金院本里叫裝孤, 元雜劇里稱“孤”, 由各行腳色扮演。⑳元明時市語“孤老”的省稱。指肯花錢的嫖客或娼夫。㉑古代方術用語。<『漢語大詞典』; 예문 생략>

(2)“使彌用教矣”: 각 글자들의 의미를 살려 “(그로) 하여금 널리 쓰라는 敎였다.” 또는 “(그를) 使(者)로 널리 쓰라는 敎였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해석안이 좋을지 결정하기 어려워 일단 두 해석을 병치시킨 것이다.

「使」¹ [『廣韻』疎士切, 上止, 生。]

①派遣(사람을 보내다)。②命令(∼로 하여금 ∼ 하게 하다)。③役使; 使喚(일을 시키다)。④謂驅使·支配(다루다. 부리다)。⑤使用; 運用(쓰다. 사용하다)。⑥耍弄(농락하다)。⑦做引起對方注意的動作或表情(동작이나 표정을 짓다)。⑧仆役(심부름꾼. 종. 하인)。⑨致使, 讓(∼한 결과가 되다)。⑩放縱(방종하다)。⑪連詞。假使(가령)。⑫官名。唐以后特派負責某種政務者稱使, 如節度使·轉運使等, 明清則雖常設之正規官員亦有稱使的, 如中央之通政使, 外省之布政使·按察使等。

「使」² [『廣韻』疎吏切, 去志, 生。]

①出使(사신이나 사자로 나가다)。②使者(사자, 사신)。<『漢語大詞典』+ 단국대 『漢韓大辭典』; 예문 생략>

「彌」 ①遍; 滿(널리 퍼져 있다. 가득하다)。②廣(넓다. 크다)。③終極(다하다. 종극)。④久遠; 久經(오래다. 오래되다)。⑤彌封; 彌補(봉합하다. 보완하다)。⑥益; 更加(더욱. 더)。⑦姓。<『漢語大詞典』+ 단국대 『漢韓大辭典』; 예문 생략>

「矣」 ①語氣助詞。表已然之事, 與“了”相當。②語氣助詞。表將然之事, 與“了”相當。③語氣助詞。表肯定或判斷。與“也”相當。④語氣助詞。表命令。⑤語氣助詞。表停頓, 以起下文。猶“也”。⑥語氣助詞。表限制, 猶“耳”。⑦語氣助詞。表感歎, 猶“啊”。⑧語氣助詞。與句中疑問詞相呼應表疑問, 猶“乎”。⑨代詞。與“之”字相當。<『漢語大詞典』; 예문 생략>

V1. □[化]/■[凡] 强兵^{安?}力^{九?} 滅^{九?}(1)□八在 追二入 (2)凡內□^{小/水/中?}矣

(~化된/무릇 강병력으로 □八在를 멸하고, 추가로 둘을 넣었으나, 다 합쳐서 모두(/단지) 內□였다.)

(1)강병력으로 滅한 대상인 “□八在”, 그리고 추가로 투입한 “二”의 의미도 불투명하다.

군사 조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것은 알기 어렵다. 태봉국에 관한 정보 부족이 주원인이 된다.

- (2)“凡”은 부사로 “다 합쳐서 모두/단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어지는 “內□”의 의미가 불명이어서 둘을 병치시킨 것이다.

V2. 今日 此時 以(1)[咎]□^{從/映?}[告](2)[幻][史] 九重[大]川^{齋?} 教德云
(오늘 이 시각 재양/근심거리[咎]□^{映?})로써 幻史에게 告하니 九重大川の 教德으로 이르기를)

- (1)“咎□”: 두 번째 글자가 불명이긴 하나, 「咎」자 한 글자만으로도 “재양/근심거리”로 해석하여 큰 문제는 없는 듯하다.

- (2)“幻史”: “환술사^{幻術師}”와 동의어로 도술^{道術}이나 불법^{佛法}의 이적^{異蹟}을 행하는 자 정도로 보고 싶다.¹⁷⁾ I 면의 부적 인물화로 보아 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싶다.

V3. (1){閉人} [當]不爲使弥[用]教[矣]耳. 九□^{日/川?}內外
(閉人是 마땅히 (그로) 하여금(/使(者)로) 널리 쓰라는 教를 행하지 못할 따름이다. 9□ 내외)

- (1)“閉人”: “閉人”이 독립된 명사구로 쓰인 예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병 따위로 몸을 망친 사람” 또는 “쓸모없이 된 사람”을 뜻하는(『표준국어대사전』) “廢人”과 동의어로 보거나, 앞 문장에서 귀신을 부르는 “幻史”가 등장함을 보아 “廢人” 이상으로 “죽은 자”를 뜻할 수도 있을 듯하다.

VI. 月朔(1)共者 十日(2)以下 把(3)內去等者(-안겔든)
(이 달 초하루부터 함께 한 자(/이바지한 자/직무를 행한 자)가 10일 이후에도 틀림없이 지킨[把守]/(잡은) 것은)

- (1)「共」자는 “拱/供/洪” 등과 통용되어 쓰이므로 본래의 뜻과 함께 여러 가능성을 나열해 본 것이다.

「共¹」 [《廣韻》渠用切, 去用, 羣。]

- ①同用; 共同具有或承受(여럿이 함께 하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관계되자)。②副詞。皆, 共同, 一起(다 함께. 모두 같이)。③副詞。甚; 深(깊이)。④總共(모두 전부)。……

「共²」 [《集韻》古勇切, 上腫, 見。] 通“拱”。

- ①拱手, 兩手在胸前相合, 表示恭敬(공수하다)。……

「共³」 [《廣韻》九容切, 平鍾, 見。]

17) “幻史”에 대해서는 임준철(2013)의 논의를 참조

①通“供”。供給；供應；供奉(이바지하다. 공급하다. 제공하다)。②通“供”。供職，奉職(받들다. 직무를 맡아보다)。③通“恭”。恭敬(공경하다)。……

『**供**』 [《集韻》胡公切，平東，匣。] 通“洪”(크다)。…… <『漢語大詞典』+ 단국대 『漢韓大辭典』; 예문 생략>

(2)“以下”: 시간명사 뒤에 쓰였으므로 “以後”와 동의어로 본 것이다.

【以下】①表示位置·品第·級別·數量等在某一點之下。②表示時代在后的，猶言以後，以來。③猶而下。以，而，連詞。④指身份或地位低下。<『漢語大詞典』; 예문 생략>

(3)“-內去等者”: “-안길드온>-안길든; 內/조동사+(ㄴ/동명사어미)+去/보조어간+(ㄹ/동명사어미)+等/의존명사+者/보조사”로 분석될 수 있는 이두토를 상정한 것인데, 이 자료에 처음 보이는 것이다. 『竅興寺鐘銘』(856)에서의 “願爲內等者”(願爲안든; 틀림없이 원한 것은)에 기대어 “把內去等者”를 “틀림없이 지킨(잡은) 것은”으로 해석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때 “-內”는 이른바 합당법 合當法 조동사 “아-”에 ㄴ-동명사어미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한 것임을 밝혀 그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정을 구하고자 한다.

“願爲內等者(안든) 種 施殿(-신) 人刀(-나) 見聞隨喜爲殿(신) 人刀(-나) 皆 無上菩提成內飛也(-아나드)”(오직(/틀림없이) 원한 것은 種種으로 베푸신 사람이나 見聞隨喜하신 사람이나 모두 無上の 菩提를 이루는 것이다.) <『규홍사종명』, 856>¹⁸⁾

『把』 ①握；執(손으로 잡다. 쥐다)。②謂一掌握의 粗細或多少(한 줌)。③稱某些一手可握持의 長形之物(한 움큼)。④繫成束의 東西(단. 묶음. 다발)。⑤掌管；控制(틀어쥐다)。⑥把守；看守(지키다. 파수보다)。…… <『漢語大詞典』+ 단국대 『漢韓大辭典』; 예문 생략>

VII. (1)午~~中~~(-고) [買]□[停]棄 本入斤內半棄

(午時에 買□停에서 버리되, 본래 들인 斤 안의 반을 (2)버릴지어다(/버리라)!)

(1)“午”가 처격조사 “-中”과 함께 쓰였으므로 시간명사로 보아 “午時”(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의 한낮 또는 0시를 기준으로 한 앞뒤 각 30분 동안의 한밤중)으로 해석한 것이다.

『午』 ①十二地支의 第七位。②十二時辰之一，十一時至十三時爲午時。③指月正中。④干支逢五曰午。(12지지의 일곱째。①天干과 어우러져서 紀年에 쓰인다. 예) 戊午 등, ②달[月]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곧 음력 오월, ③천간과 배합하여 날짜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예) 庚午之日, ④때[時]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의 한낮 또는 0시를 기준으로 한 앞뒤 각 30분 동안의 한밤중。)…… <『漢語大詞典』+ 단국대 『漢韓大辭典』; 예문 생략>

(2)문말 종결어미를 감탄 또는 명령형으로 한 것은 V-2행의 말미 “敎德云”에 호응되는

18) 『규홍사종명』에 대한 해석은 남풍현(2000: 400-405, 448-451) 및 남풍현(2011: 141-151)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요소로 생각한 것이다. 마지막 글자 「棄」자()가 이웃해 있는 글자들보다 두세 배 이상 길게 늘어쓴 것에 종결의 뜻과 함께 이러한 감탄 내지 명령의 어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 것이다.

III. 목간 해석안 종합 및 이두발달사적 의의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해석안을 종합하여, 목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 목간에 보이는 이두토들을 바탕으로 그 존재 양상 및 이두발달사적 의의를 구명해볼 것이다.

3.1. 해석안 종합 및 주요 내용 파악

이상 각 면의 해석안들을 한 자리에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 I. 覺! …… 如律令!
(覺醒! …… 如律令! [주문呪文; 율령처럼!])
- II. 政開三年 丙子 四月 九日 城 大井 住爲在(-亨견) 龍亦中(-여기)
(政開 3년(916) 丙子 4월 9일, 城의 大井에 住하신 龍왕님께)
- III. 民口逆內手 爻味亦在筭者(-여견든은) 能筆生彼者
(백성들[民口]이 거역하여 손을 거두어들이는 것이[內手] 爻辭의 意味[爻味]라고 한 까닭이라면, 능히 筆로써 저 사람을 살려주소서!)
- IV. 辛亥歲 廿六 茂金 此人孤者 使彌用教矣.
(신해년(891)에 태어난 26세 茂金, 이 사람은 孤兒이나, (그로) 하여금(/使(者)로) 널리 쓰라는 敎였다.)
- V1. □化 强兵力 滅□八在 追二入 凡內□矣
(~化된 강병력으로 □八在를 멸하고, 추가로 둘을 넣었으나, 다 합쳐서 모두(/단지) 內□였다.)
- V2. 今日 此時 以咎□[告][幻][史] 九重[大]川 教德云
(오늘 이 시각 재앙/근심거리[咎□]로 幻史에게 告하니 九重大川의 敎德으로 이르기를)
- V3. 閉人 當不爲使弥用教矣耳. 九□內外
(閉人은 마땅히 (그로) 하여금(/使(者)로) 널리 쓰라는 敎를 행하지 못할 따름이다. 9□내외)
- VI. 月朔共者 十日以下 把內去筭者(-안겔든)
(이 달 초하루부터 함께 한 자(/이바지한 자/직무를 행한 자)를 10일 이후에도 틀림없이 지킨[把守](/잡은) 것은)

VII. 午_中(-기) 買_口停棄 本入斤內半棄

(午時에 買_口停에서 버리되, 본래 들인 斤 안의 반을 버릴지어다(/버리라!))

이상의 해석안들을 보면, I·II면을 제외하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주요한 원인은 판독상의 오류, 한문 해석상의 미숙 또는 알 수 없는 태봉국의 한문 구사력 등 복합적인 요인 외에 용왕을 대상으로 한 제의문_{祭儀文}이 지니는 주술적인 언술의 사용에도 또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비슷한 제의 의식을 담고 있는 전인용사지 목간에서도 해석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거니와, 이 목간에서도 여전한 해석상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주술적인 언술이란 일반적인 대화 내지 작문 환경이 아니라, 용왕을 비롯한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소원을 빌거나 명령 내지 청원을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의 문장들이기에 일상의 언어와는 다른 단어의 사용 또는 문장의 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 문법으로는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간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이 목간의 성격은 I면의 부적 인물화의 존재, II~III면에서의 용왕께 소원을 비는 장면, V면 2행에서의 “환사”의 등장 등에 근거하면 도교적 제의 의식을 담고 있는 주술_{呪術} 목간으로 규정하여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목간의 주인공인 “茂金”은 26세의 고아임에도 공직자로 널리 쓰라는 교시가 있었지만, 백성들과 조정 간의 불화로 인한 병력 동원의 내란적 상황에서 폐인_{閉人} 이상의 상처를 입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환사_{幻史}”를 모셔 놓고 正開 3년(916) 음력 4월 9일에 대정_{大井}의 용왕신께 그의 소생을 비는 제의 의식 및 그 사후 처리 과정을 담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이두토의 존재 양상 및 이두발달사적 의의

앞서 제시된 목간 해석문의 원문에 밑줄 및 기울임체로 표시된 이두토가 다섯 군데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住_{爲在}(-亨견): “爲在”의 가장 이른 사례
- 2) 龍_{亦中}(-여기): 여격 용법의 “亦中”의 가장 이른 사례
- 3) 爻味_{亦在等者}(-여견든은): 초출 이두토
- 4) 把_{內去等者}(-안겔든): 초출 이두토
- 5) 午_中(-기): 기출 이두토

(추후 완성)

IV. 맺음말

(추후 완성)

참고 문헌

- 管錫華(2002), 『中國古代標點符號發展史』, 成都: 巴蜀書社.
- 김병조·고재용(2024), 「양주대모산성 원형집수시설 출토 목간-양주대모산성 13차 발굴조사-」, 『목간과 문자』 32, pp.219-241.
- 김영옥(2011), 「전인용사지목간에 대한 어학적 접근」, 『목간과 문자』 7, pp.67-79.
-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 남풍현(2011), 「古代韓國語의 謙讓法 助動詞 ‘白/畚’과 ‘內/아’의 發達」, 『구결연구』 26, pp.131-166.
- 남풍현·이건식 외(편)(2020), 『이두사전』, 단국대학교출판부.
- 노명호 외(2000),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명호·이승재(2009),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판독과 역주」, 『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조계종, pp.50-65.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편)((1999~2008), 『대한한사전1~15, 색인』, 단국대학교출판부.
- 박종옥(2024), 「675년 買肖城 戰役의 전개 과정과 그 戰場」, 『선사와 고대』 74, pp.149-182.
- 박진호(198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pp.121-205.
- 백종오(2024), 「한국고대 성곽문화의 결절지, 양주」, 『선사와 고대』 74, pp.49-85.
- 이승재(2000), 「차자표기 자료의 격조사 연구」, 『국어국문학』 127, pp.107-132.
- 이승재(2017), 『목간에 기록된 고대 한국어』, 일조각.
- 이용(2017), 「助詞 表記字로 본 吏讀의 變遷」, 『구결연구』 38, pp.109-149.
- 이용(2019), 「차자표기 자료의 ‘者’ 구문에 대한 문법사적 고찰」, 『언어와 정보 사회』 36, pp.375-398.
- 이재환(2024), 「양주 대모산성 목간1의 인물 형상에 대한 검토」, 『목간과 문자』 33, pp.215-238.
- 이용(2023), 「어말어미 표기자로 본 이두의 변천」, 『구결연구』 51, pp.155-185.
- 이철수(1997), 「장성 백암사첩문의 이두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8, pp.1-72.
- 임준칠(2013), 「연행록 幻術記事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층위와 幻史」, 『한국한문학연구』 51, pp.487-533.
- 編輯部(2007), 『大書源』, 東京: 二玄社.
- 漢語大詞典編纂處(編)(2003),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